

유아교육·보육 교재 교구 인증평가의 과제와 전망

최연철*

¹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The Prospects and Tasks of Accreditation System for Instructional Materials and Equipmen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Youn-Chul Choi*

¹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약 본 연구에서는 먼저 유아용 교재·교구 평가인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선행연구고찰을 통하여 평가인증에 관한 인식, 분류기준체계 마련의 필요성 그리고 평가인증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또는 소홀하게 다루어진 과제와 전망에 대해 크게 인증평가대상과 인증평가항목 등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인증평가대상>에서는 첫째, 3-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에 수록된 교재·교구에 한정해야 할 것, 둘째, 학습지형태 교재·교구는 인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것, 셋째, 투명한 유통경로를 확보한 회사의 교재·교구만을 평가인증 대상에 포함할 것, 넷째, 교사개별 주문용 템플릿을 평가대상에 포함할 것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편 <인증평가항목>에서는 첫째, 교재·교구 관리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항목, 둘째, 위생관리의 용이성 항목, 셋째, 수리와 보수 가능성에 관한 항목, 넷째, 지속가능발전지향성에 대한 항목 등을 평가기준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prospects and tasks of accreditation system for instructional materials and equipmen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Various aspects of accreditation system, such as necessities of evaluation system, thoughts regarding evaluation system, necessities of categorizing standards, and necessities of constructing accreditation system were discussed based on previous research. Also other aspects of accreditation system which were not considered in the previous research, such as thoughts related with instructional materials and equipment being evaluated and considerations regarding evaluation indexes were explored.

Keywords :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ructional Materials for Children, Accreditation System for Instructional Materials

1. 서론

유아교사들은 학부를 다닐 때부터 교재·교구 만드는 일에 많은 시간을 쏟는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 손재주가 없어서 교재·교구 만드는 것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학생이 있을 정도로 예비유아교사나 유아교사에게 있어서 손재주는 필수적인 능력으로 간주되곤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아교사의 뛰어난 손재주가

그들의 발목을 잡곤 한다. 교재·교구를 직접 제작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정작 수업을 위한 제반 준비에 소홀하기 쉽다는 것이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2014)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의 84.4%가 교재·교구를 직접 제작하고 있으며 제작할 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시간 부족’으로 조사된 바 있다[1].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교사 대상 연구(2009)에서도 88.3%에 해당하는 교사가 교재·교구를 직접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열 명의 교사가

*Corresponding Author : Youn-Chul Choi(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el: +82-43-230-3616 email: eekjunechoi@knue.ac.kr

Received June 9, 2015

Revised (1st July 15, 2015, 2nd July 22, 2015)

Accepted September 11, 2015

Published September 30, 2015

운데 8명에서 9명 정도의 교사가 교재·교구를 직접 제작하고 있다면 교재·교구에 대한 인증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교사가 모든 교재·교구를 직접 제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육아정책연구소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구를 읽으면서, 전체 교사 가운데 85% 정도가 모든 교재·교구를 직접 제작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면, 그러한 오해는 유아교육기관 또는 학급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 교재·교구 가운데 교사가 제작하고 있는 것이 몇 퍼센트인지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는 많은 교사들이 상품화된 교재·교구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직접 제작하는 교재·교구는 일부에 국한되어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교재·교구에 대한 인증평가준거를 마련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재·교구 시장은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상품화된 교재·교구 시장이 넓어지면서 유아 교사가 교재·교구를 직접 제작해야 한다는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안전과 견고함 등을 고려한 세련된 디자인의 상품화된 교재·교구는 유아의 흥미를 끌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교수·학습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재·교구의 상업화로 인해 교육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고 유아의 말초적인 흥미만 자극하는 교재·교구가 양산될 가능성도 있다. 교재·교구가 유아의 흥미를 만족시키고 동기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단순히 흥미만을 자극할 뿐이고 그 흥미와 동기가 학습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 교재·교구는 교육적인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아의 성장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교재·교구에 대한 인증평가준거를 통해 교재·교구에 대한 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유아교육협회(NAEYC)(2014)에서는 교재·교구를 항상(Always), 임의(Randomly), 평가 영역에서 제외하는 권장사항(Not currently assessed) 등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기관에서 활용하는 교재·교구에 대한 질 관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3]. 우리나라의 경우, 유치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과 '유아교육법(제13조 ③)교육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

할 수 있다'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 별로 시설, 설비와 교재, 교구에 대한 최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 교구·설비 기준의 분류 체계 및 소요기준 등에서 지역별로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어린이집의 경우 시설 인가 시 따라야 할 시설, 설비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기준이 될 수는 있으나 체계적인 근거에 의거한 규정이 아니며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점이 문제이다.

한편 누리과정의 지속적인 발전 및 유아교육 선진화를 추진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유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2013)는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데, 그 가운데 '유아교육 교재교구 인증제 도입 및 우수 프로그램의 활용'이 포함되어 있다[4].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다양한 교재·교구가 활용되고 있으나 특히 민간업체가 보급하는 교재·교구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하여 질적 수준이 담보되지 않은 교재·교구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교육의 질적 편차를 야기하므로 유아교육 교재·교구 인증제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교사가 교육활동에 몰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교재·교구의 제작 부담을 줄여야 하며, 상품화된 교재·교구의 질 관리를 통해 이를 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누리과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유아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교재·교구의 인증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적 인증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유아용 교재·교구의 교육적 의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발달 적합성 및 질적 우수성에 근거하여 우수한 교재·교구를 개발, 유지, 관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유아용 교재·교구의 질적 개발, 유지, 관리 체계는 유아교육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용 교재·교구 평가준거에 대한 학자 및 현장의 요구와 관심은 아직 표면화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선행연구 또한 몇 편에 불과한 형편이다.

유아용 교재·교구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평가인증에 관한 교사의 인식[5][6]과 분류기준체계 마련의 필요성[7][8], 그리고 인증 평가시스템 구축의 필요성[9] 등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평가인증 시스템의 운영방안에 대

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부재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가인증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현실적인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에서 고찰한 과제와 전망

2.1 평가인증에 관한 인식

유아용 교재·교구 평가인증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선희와 이일주(2010)가 수행한 보육시설 유아반 교재·교구 기준안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에서는 대전과 충남의 유아반이 있는 보육시설 교사의 91.7%가 교재·교구 기준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10]. 또한 강영식(2013)은 유아교육 현장의 인식 및 요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대전광역시 소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와 원장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6]. 그 결과, 교육적 측면에서 유아용 교재·교구 평가인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경철과 정세호(2013)는 유아용 교재·교구 평가인증에 관한 산업체의 인식 및 요구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10]. 그 연구에서는 45개 업소를 대상으로 사업형태와 주력 제품의 확보 방안, 주력 제품의 관리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인증관련문항에 대해서 인증이 효과가 있으며 별도로 구성된 인증기관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기관 관련자뿐만 아니라 산업체 관리자 역시 유아용 교재·교구 평가인증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재·교구를 활용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와 교재·교구를 생산하는 산업체 모두, 교재·교구에 대한 평가인증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재·교구가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고려해보는다면 이러한 결과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평가준거를 어떻게 마련해야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우선 분류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부터 합의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2.2 분류기준체계 마련의 필요성

평가인증체제를 구축하기 이전에 분류기준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으며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규수(2014)은 교재·교구 산업의 분류기준이 부재

하며, 질 관리가 허술하고, 상업화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교재·교구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없으며 교재·교구 활용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없고, 교재·교구 유통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7].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교재·교구에 대한 평가인증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관리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김규수와 박승순(2013)은 분류기준에 대한 후속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두 연구자는 유아용 교재·교구 평가인증을 위한 분류체계를 연구하였으며 Yawkey와 Trostly(1982)의 분류기준과 감각에 따른 분류기준, 경험의 구성과 추상성 정도, 교재·교구의 성격, 흥미영역, 활동 성격에 따라 교재·교구를 분류하였다[8]. 그리고 국가수준 표준보육과정의 연령 및 흥미영역에 따른 교재·교구 분류와 유치원 설립인가 시에 갖추어야 하는 교재·교구 기준에 따른 분류, 연령별 분류에 대해 알아보고 일본과 중국의 교재·교구 분류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관리프로그램을 설계한 연구도 있다. 김천희, 박윤, 윤삼중(2006)은 유치원의 교재·교구 관리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프로그램을 적용했더니 자료를 찾기 위해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이 줄었으며 중복되는 교재·교구 구입에 드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논의하였다[11].

2.3 평가인증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유아용 교재·교구 평가인증 체제를 공고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김경철과 이만수(2014)는 산업분야의 인증시스템에 대해 살펴본 뒤 유아교육 분야 인증시스템 가운데 방과 후 과정 특화 프로그램 추천제와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체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우수유치원 평가인증 등 인증기관 구분에 따라 장, 단점을 비교하였다[9]. 그 결과를 토대로, 인증시스템의 주체는 정부 혹은 정부산하단체가 하되 평가준거 개발 및 운영은 유아교육 전문단체가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는 첫째, 평가인증에 관한 인식, 둘째, 분류기준체계 마련의 필요성, 셋째, 평가인증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선행연구결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편 육아정책연구소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구는 교재·교구에 대한 전반적인 면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 하며 평가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2014)에서는 유치원 교재·교구의 실태 및 요구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유치원 교재·교구 구비 기준(안) 및 활용안을 제안한 바 있다 [1].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연구(2009)에서 역시 교재·교구 실태 및 요구 조사, 교재·교구비 지원 효과 및 요구 조사, 교재·교구 판매 시장 조사를 실시하고, 영유아 보육프로그램에 따른 교재·교구 표준안을 개발한 바 있다 [2].

3.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과제와 전망

유아용 교재·교구 인증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며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유아용 교재·교구 평가준거의 토대구축 측면에서 본다면 연구 내용의 폭이나 깊이 면에서 충분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유아용 교재·교구 평가준거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언급할 것이 아니라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소홀하게 다루어진 과제와 전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3.1 인증평가대상

유아용 교재·교구 인증평가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평가대상이 되는 교재·교구의 범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는다면, 유아에게 수준 높은 교재·교구를 제공하고자 했던, 유아용 교재·교구 인증평가의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인증평가의 대상은 3-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에 수록된 교재·교구에 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아용 교재·교구의 범주를 커다란 의미에서 본다면 유아가 가정에서 가지고 노는 장난감까지 포함해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평가대상을 확대할 경우 유아교육기관에서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교재·교재 인증에 대한 평가가 뒷전에 밀릴 가능성이 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3-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에 수록된 모든 교재·교구를 구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만약 유치원 교사조차 누리과정에서 정한 영역별 교재·교구에 대해 알지도 못한다면 문제가 된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2014)의 결과에 따르면, 3-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에 영역별로 갖추어야 하는 교재교구 관련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내용을 알고 참고하여 구비하였다’라고 응답한 유치원 교사가 전체 응답자의 53.3%에 불과하였다는 점[1]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습지형태 교재·교구는 처음부터 인준 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육아정책연구소 방과후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추천제(2015)에 따르면 서류심사 점수 80점 가운데 교재 및 교구 항목에 15-20점(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상이함)을 배점하였으며 목표와의 연계성, 안정성, 다양성, 적합성, 타당성, 위계성 등의 하위항목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유아교육에서는 교재와 교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12]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 중인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의 교재·교구는 표면적으로는 ‘스스로 만들기(DIY: Do It Yourself)’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방법대로만 따라 만들어야만 하거나 이미 완성된 작품에 마지막 손질만 가하면 되는 형식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으며 아예 학습지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교재·교구까지 인증평가에 포함한다는 것은 해당 교재·교구의 인증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교재·교구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

셋째, 투명한 유통경로를 확보한 회사가 제작한 교재·교구만을 평가인증 대상에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재·교구 유통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김규수(2014)가 이미 지적한 바 있다[7]. 그래야 ‘교재·교구업자의 상술에 넘어’가서 필요하지도 않은 교재·교구를 구입하고 나중에 후회하거나 실망하는 일[2]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통해 교재·교구를 판매, 구매하는 것은 안정적인 유통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교사개별 또는 유치원별 주문용 템플릿을 평가대상에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상품화된 교재·교구 시장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에서는 아직도 교사가 교재·교구를 직접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과의 관련성’이 있는 교재교구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1]이기도 하고 ‘주체에 따라 교사의 구미에 맞는 교재·교구를 만들 수 있기 때문’[2]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사가 원하는 교재·교구의 제작을 대행해주는 사업도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게임이나 동화자료 등은 적절한 템플릿만 있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맞춤형 교재·교구를 제작할 수 있

을 것이다. 교사가 주문한 내역대로 교재·교구를 제작해주는 시스템만 제대로 정착된다면 유아교사가 행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유아들 역시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2 인증평가항목

유아용 교재·교구 인증평가에 어떤 평가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소홀하게 다루었지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평가항목 몇 가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교재·교구 관리가 용이한지에 대한 평가를 인증평가 항목에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아에게 적합한 교재·교구를 제작하는 것이 그 어떤 조건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교재·교구라면 아무리 훌륭해도 자주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행연구[1][2]에서 교사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교재·교구 관리의 어려움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아무리 좋은 교재·교구라고 할지라도 그 교재·교구가 관리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폐기처분되기도 하고 활용하기가 꺼려지기 때문에 교재·교구의 제작 단계부터 관리의 용이성을 철저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척과 소독의 용이성을 평가 항목에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나이가 어린 유아들이 사용하는 교재·교구는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세척과 소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 결과 [1]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들은 교재·교구의 위생관리를 위해 세척(67.7%), 먼지제거(50.1%), 소독(33.7%) 순으로 많이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1년 평균 세척은 4.2회, 소독은 7.2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선행연구[2]에서는 교재·교구 보관실이나 보관함을 정기적으로 소독 및 관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 보육교사 가운데 41.6%가 ‘그렇다’ 그리고 36.2%가 ‘보통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처럼 교재·교구의 위생관리는 쉬운 일이 아니므로 유아교사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교재·교구를 제작해야 할 때부터 세척의 용이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리와 보수 가능성도 평가항목에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 결과[1]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들은 교재·교구의 파손이 있거나 부속품이 손실될 경우 전체를 교체하기보다 이를 보수하여 사용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 부속품 구입과 수리가 용이할 수 있기를 원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의 교재·교구 제작 회사가 계속해서 부속품을 제작하고 수리서비스를 제공해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예상해야 한다. 따라서 주요부품이 망가지도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또한 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에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재·교구의 지속가능발전지향성에 대한 평가 준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김규수(2014)는 기후변화와 지구환경의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친환경과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교재·교구를 제작할 때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성이 큰 소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7]. ‘지속가능발전’은 다양한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범 공동체적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유아용 교재·교구 평가준거에 지속가능발전관련 항목을 포함하고자 한다면, 친환경적 소재로 제작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평가 대상이 되는 교재·교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통합적인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도 평가에 포함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교재·교구 활용 과정에서 창의적인 면과 협력적인 면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역시 평가에 포함해야 할 필요도 있다.

4. 결론

Fröbel은 자신의 만유재신론적 세계관을 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끝에 은혜로운 물건(恩物)을 만들었다. 은물을 통해 다양한 기하학적 형태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며 통일성의 개념을 터득하고 창조의 논리를 깨닫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 은물은 말 그대로 선물(Gabe, Gift)임에 틀림없었다. Montessori도 자신이 고안한 교구 안에 평소에 가지고 있던 교육철학을 담았다.

유아교육기관의 교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경제적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교사가 교재·교구를 손수 제작해야 하는 경우[2]라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사 역시 교재·교구를 제작하면서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과의 관련성’을 생각하게 되고 교재·교구에 자신의 유아 교육철학을 담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가 교재·교구 안에 내재해 있는 교육원리를 체득해가면서 ‘정해진’ 방법대로만 사용하기를 원할 수 있다.

하지만 유아들은 교사의 기대를 저버리거나 또는 뛰

어님께서 교재·교구를 창의적으로 활용하곤 한다. 자유 선택영역에 교사가 마련해둔 구슬 꿰기와 수 교구는 다른 놀이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구슬 꿰기의 구슬은 축구공, 수 교구의 나뭇조각은 축구선수, 나무상자는 축구 골대, 수 막대 활동판은 점수판이 되어 신나는 축구경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유아들은 성인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교재·교구를 가지고 노니가 성인의 의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축구경기의 예를 든 것은 아니다. 유아용 교재·교구는, 분명하게도, 교사의 교육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커다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재·교구가 발달에 적합하고 각 교육활동의 교수·학습 목표에 적절한지, 그리고 교육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교사가 의도한 또는 교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교육적 목적에 따라 교재·교구를 활용하든, 아니면 원래의 제작목적과 맞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유아가 자신만의 창의적인 생각에 따라 교재·교구를 가지고 놀든 관계없이, 어떤 경우든 교재·교구가 실제로 유아의 손에 닿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여러 가지 다양한 외적조건 때문에 교재·교구의 활용에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훌륭한 교재·교구라도 결국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사소하니까 무시해도 좋을 것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평가요소와 평가대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유아용 교재·교구 평가인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선행연구고찰을 통하여 평가인증에 관한 인식, 분류기준체계 마련의 필요성 그리고 평가인증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또는 소홀하게 다루어진 과제와 전망에 대해 크게 인증평가대상과 인증평가항목 등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인증평가대상>에서는 첫째, 3-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에 수록된 교재·교구에 한정해야 할 것, 둘째, 학습지형태 교재·교구는 인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것, 셋째, 투명한 유통경로를 확보한 회사의 교재·교구만을 평가인증 대상에 포함할 것, 넷째, 교사개별 주문용 템플릿을 평가대상에 포함할 것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어떤 교재·교구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인증평가 준거를 마련하고 평가를 실시한다면, 교육적인 가치가 없거나 유아의 흥미

만을 추구하는 교재·교구 역시 평가를 통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평가준거를 마련하기 이전에 어떤 교재·교구를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증평가항목>에서는 첫째, 교재·교구 관리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항목, 둘째, 위생관리의 용이성 평가항목, 셋째, 수리와 보수 가능성에 관한 평가항목, 넷째, 지속가능발전지향성에 대한 평가항목 등을 평가준거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무리 훌륭한 교재·교구라 할지라도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면 쓸모없는 물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접근성의 문제를 인증평가의 준거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References

- [1] J.S. Kim, J.A. Park, & J.M. Kim. Research on Quality Control of Instructional Materials and Equipment in Kindergarten. Seoul: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4.
- [2]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Utilization Strategies of Instructional Materials and Equipment in Child Care Center. 2009.
- [3] National Association for Education of Young Children(2014). NAEYC Early Childhood Program Standards and Accreditation Criteria & Guidance for Assessment. NAEYC.
- [4] Y. Kim, K. Lee, E. Shin, M. Moon, E. Park, M. Jang, M. Jung, H. Lee, B. Jo, M. Woo, M. Moon, H. Jo, Y. Choi, J. Kim, E. Kim, H. Suh. Policy Research on Five-Year Pla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eou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3.
- [5] S.H. Jeong, & Y.J. Lee. A Study on the Developing Criteria of Teaching Materials and Implements for Children's Class in Child Care Center. Montessori Educational Research. Vol. 15, pp. 59-83, 2010.
- [6] Y.S. Kang.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Nee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Field on Authentication of Teaching Materials and Implements for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pp. 982-984,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2.793>
- [7] K.S. Kim. The Outlook and Challenges of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 Industry. Journal of the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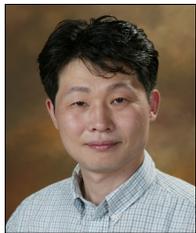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1, pp. 81-85,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1.81>

- [8] K.S. Kim, & S.S. Park. A Study on Categorizing Standards of Accreditation System for Instructional Materials and Equipmen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pp. 985-1014, 2013.
- [9] K. C. Kim & M.S. Lee.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ccreditation System for Instructional Materials and Equipmen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4 pp. 2123-2133,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4.2123>
- [10] K.C. Kim, & S.H. Jung. Views of Industries on the Development of Accreditation System for Instructional Materials and Equip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pp. 977-981, 2013.
- [11] C.H. Kim, Y, Park, & S.J. Yoon. Teaching Materials and Tools, The National Kindergarten Curriculum. KCA Thesis Journal, Vol. 6, No. 12, pp. 201-215, 2006.
- [12]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http://www.kicce.re.kr/kor/index.jsp>, 2015.

최 연 철(Youn-Chul Choi)

[정회원]



- 2001년 5월 : Univ. of North Carolina C & I(유아교육전공) (철학박사)
- 2005년 9월 ~ 2015년 2월 : 건국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2011년 3월 ~ 2014년 12월 :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학회장
- 2015년 2월 ~ 현재 :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유아사회교육, 유아예술교육, 유아교육과정